

‘와서 믿는 것’ 아닌 ‘와서 보는 것’

e 해외불교칼럼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 하나, 사실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이란 없다. 그들은 그저 불제자일 따름이다. 이 말이 헛갈리는 독자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덧붙이겠다. 붓다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었다. 삼라만상의 본질을 꿰뚫어 큰 깨우침에 이른 그는 45년 남짓 곳곳을 누비며 온갖 사람들에게 복잡 미묘한 삶과 우주에 대해 빛나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럼 이제 독자님들에게 물겠다. 님들은 학교에 다닐 때 뭔가를 배우고자 스승들에게 ‘개종’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말씀이라면 그저 두 눈 짙은 감고 죄다 믿는 맹신자였는가? 그게 아니라면, 스승들의 말씀과 뜻이 앞뒤가 맞는지 먼저 이리저리 헤아려본 다음, 님들이 확신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는가?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님께서는 이미 불제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와서 보라(see and see)’고 할 뿐, ‘와서 믿으라(come and believe)’고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무턱대고 들이치는 타 종교와의 근본차이다.

불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선택이자, 사성제와 팔정도, 불교 철학적 개념들에 대해 탐구 정진하겠다는 자기 약속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불법승 삼보에 기대어 나 스스로를 편히 쉬게 하는 것이다. 불교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은 신앙적 포용성이다. 그럼으로 누구든 자신



불교는 믿을 것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고 깨달을 것을 가르친다. 사진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법회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의 종교를 굳이 안 바꾸고도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그 경이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모두가 잘 알듯, 붓다는 전 생애를 통해 신이라 자칭하거나 신처럼 행세하지 않았다.

해서 누구든 배교자로 몰리거나 영터러신을 믿는다는 등의 생트집에 말려들지 않고도 인간 붓다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배우고 따를 수 있다. 기독교인, 유태교인은 물론 무슬림 가운데 불제자들이 적잖은 까닭도 바로 그래서다.

먼저 스승 붓다의 참 모습을 바로 보고 우리 이웃에 자비심을 지니도록 하자. 또한 불

서들을 읽고 법문도 들으며 온화한 심성을 키워가자. 그리하면 나 또한 어느덧 착한 불제자가 되어있음을 알리라.

번역=성후 스님

이 글은 미국의 프리랜서 작가 및 각 분야 전문저술가의 온라인 등단지인 helium.com에서 발행했다. 엑스레이 맨(xrayman)이란 id의 기고자는 불자이자 저술가다. 그는 자기공명 이미지 및 핵의학 계통의 엔지니어이며 현재 무선통신, 내비게이션 전문교육, 참고로, 이 등단지는 국제적으로 개방되고 채택된 원고는 사상 및 출판자원에 함으로 우리 불자님들도 두루 활용하시기 바란다.

월드 불심도

만능록스타 리키 마틴

“증오·미움 벗고 해탈의 길로...”

리키 마틴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특정 종교에 매달리기 보다는, 여러 종교와 철학을 두루 섭렵해 제 삶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취사선택할 겁니다.” 이는 곧 인간을 은근히 얽어매 끌고 가려는 종교적 속성을 단연 거부한다는 공개선언이다.

이만큼 담담하고 정직한 신앙고백이 또 있을까? 종교마저 하나의 구적으로 보는 그는 가히 완벽한 자유인이다. 종교 개혁이란 마틴 루터만의 전유물일 수 없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사실 그는 모태신앙인 가톨릭은 물론 이른바 사이비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모 개신교 유파를 비롯해 유대교와 힌두교 등에 깊은 식견을 지닌 숨은 비교종교학자다.

그리고 또 다른 할리우드 불자인 비스티 보이즈의 애덤오와 엘라니스 모리세트처럼 ‘영혼의 충전’을 위해 동양 여행을 떠난 일종의 성지순례자이기도 하다. 그는 그렇듯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자기의 길을 헤쳐 마침내 불문에 들

어선 당당한 카리스마를 지닌 불자로서, 명달야 박수치고 노래하고 악소 울다가 얼떨결에 ‘믿습니다’라고 따라하지 않았다. ‘눈 먼 믿음’이 아닌 ‘눈 뜬 믿음’을 스스로 찾아낸 그는 타고난 리더이다. 즉, 내 곁을 쏠아버리고 남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자기 사고 포기형 철부지가 아닌 것이다. 현재 불자는 아니든 수많은 서구인들은 리키 마틴과 같은 생각이다. ‘왜 내가 죄인이고, 누구의 죄이며, 내 일생 내내 누군가에게 주눅 들어 살아야 하나?’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런 우스개까지 나오는 판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신생아일은 영아 교도소며, 장례식은 신나는 축제란 건가? 게다가 도대체 어느 뭇님 부모가 자식을 죄인에다 종로 태어나게 하는 거지? 나 원 참!’ 이 모든 것에 대해, 불교는 그들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개인수술을 도울뿐더러, 내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 I am the Master of My Self임을 일

깨워 준다. 시퍼런 독기가 서린 영혼장사치들이 바글대는 ‘종교 시장’에서 얼떨결 총동구매가 아니라 짐작하고 냉정한 안목으로 선택하도록 이미 2500년 간 전해온 종교라는 ‘영혼상품’의 소표 지침서를 새삼 공개한 리키 마틴, 그는 역시 붓다의 수제자다.

그 무엇도 믿지 말라 어디서 읽었든 그 누가 말했든, 내가 말한 바라 허더라도 그대 자신의 이성과 보편타당의 상식이 동의하지 않는 한

Believe nothing. No matter where you read it, or who said it, even if I have said it, Unless it agrees with your own reason and your own common sense. — the Buddha

엄매이는 종교적 속성 거부 “타종교 비방은 악업 짓는 일”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저는 어느 종교가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고 말하는 열빠진 바보는 아니죠.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몹쓸 카르마가 바로 타인의 종교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불교가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훌륭한 불자는 못될지라도 이젠 더 이상 다른 종교에 관심 없어요.”

역시 불제자인 제니퍼 로페즈와 더불어 허스페닉을 대표하는 메가스타인 리키 마틴은 노래와 자비회를 가득 채운 미국과 중남미 포교의 거대 경인차이도 하다. 그는 불문에 들어서면서부터 한때 멀어졌던 아버지와 빠아픈 공백을 새롭게 채워가고 있다. “오늘도 저는 아버님과 다시 한 발짝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영원한 자유인 리키 마틴은 마침내 미운 아버지와 화해했다. 그러나 그보다 증오와 분노라는 끈질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풀어준 또 한 번의 자기해방, 곧 해탈을 이룬 것이다. <끝>



버클리 불교 연구센터 엠블럼 로고

불교연구 학생에 장학금 매 버클리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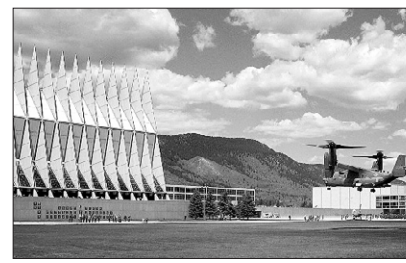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불교연구센터는 지난 8월부터 불교를 집중 연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동 센터의 공동설립자이자 명예 교수인 파드마나브 제이나가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한 장학기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상당액의 이 기금은 인종, 종교와 출신국가에 무관하게 불교학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버클리의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제이나 교수는 버클리 재임에 앞서 영국 런던의 동양 아프리카연구원과 미시간대에 재임한 바 있다. 로터스인더머드 lotusinthemud

태국 불교보호법안 심의 착수 사찰 훼손 벌금형 등 내용 포함

태국 국회는 10월 25일 불교보호 법안을 정식 의제로 채택, 심의에 착수했다. 비구, 비구니 및 행자에 대한 성폭행 등 각종 범법행위를 엄단할 등 법안은 특히 최초로 비구니의 법자신분과 지위향상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헌법상 불교를 태국의 국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일부 의원 등 179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불교 및 부처를 왜곡 모욕하는 경우 최고 25년 징역, 사찰, 불구 및 불상 등의 훼손의 경우 최고 510만 바트 벌금형이 포함됐다.

또한 이들은 원로스님, 불교법률기구대표, 정부 각 부처의 고위급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불교진흥보호협회를 총리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을 상정했다. 방콕 포스트 The Bangkok Post



미 공군사관학교에 첫 불교 법당

10월 29일 콜로라도 현지시간으로 오후 1시 미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종교관에 최초의 불교법당(사진 왼쪽 건물)이 봉헌됐다.

생도 및 내외 하객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대귀법당(Vast Refuge Dharma Hall)으로 공식 명명된 등 법당의 봉헌예식은 1959년도 입교 동기생인 윌리 버치 스님이 집전하고 성대한 축하 리셉션으로 이어졌다.

생도 신문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불자 생도들을 위한 법당은 전통 대승불교 법회를 정기 개최하며 장교 및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What you say that you see are just illusions -당신이 본다고 하는 건 모두 헛것일 뿐

A man born blind said: "I do not believe in the world of light and appearance. There are no colors, bright or somber. There is no sun, no moon, no stars. No one has witnessed those things." He told his friends, "What you say that you see are just illusions. If colors existed, I should be able to touch them. Everything real has weight, but I feel no weight where you see colors." A physician called by his friend melted four simples and applied them to the eyes of the blind man. As the grey film of his eyes had melted, his eyes could see. The Tathagatha is the physician, the grey film is the illusion and the four simples are the four noble truths.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사람이 말했다. “난 빛과 모양이 있는 세상이란 걸 믿을 수 없어. 밝든 칙칙하든 색깔이란 것도 없지. 해나 달이나 별 따위도 없단구. 그만 걸 본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는 친구에 말했다. “네가 본다고 하는 건 그저 헛것일 뿐이야. 만약 색깔이란 게 있다면 내가 만질 수가 있어야지. 진짜로 있는 건 다 무게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난 네가 색깔을 본다는 데서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어.” 친구가 불러운 의원이 네 가지 약초를 섞어 장님의 눈에 발라줬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흐릿한 막이 녹아내려 이전 볼 수가 있게 됐다. 여태가 곧 그 의원이며, 흐릿한 막은 미망, 그리고 네 가지 약초란 사성제를 뜻한다.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套 6권 정가 90,000원 → 특가판매 6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전화 02)737-0695 / 02)2004-8237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자!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아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속 한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